



다솜 사랑

Volume 5, Number 1

2008년 10월 11일

다솜 사랑
Vol. 5, No. 1 (제19호)
편집인: 교장 최미영
역은이: 교사 임강주

학교장 인사말씀

최근에 한 부모님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이번 학기에 자녀를 학교에 보내지 않고 그냥 한 학기 쉬게 하려고 했는데 딸이 자꾸 한국학교에 왜 안가느냐고 재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딸에게 한국학교가 좋은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더니 아침조회 시간에 배우는 한국 역사 시간이 재미있고 친구들과 만나는 것이 좋기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 통화를 하면서 마음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저는 역사 시간을 준비하는 것이 가끔은 귀찮고 어떤 경우에는 어떻게 가르쳐야 할 지 잘 몰라 걱정을 하면서 준비하고 있었는데 학생으로부터 이런 피드백을 받았으니 말입니다.

부모님들 중에는 한국학교에 보내지 않은 변명으로 다음과 같은 이유를 대십니다. 토요일에 다른 활동도 많은데 한국학교에 보내지 않고 그냥 집에서 가르치거나 개인 교습을 받으면 시간도 절약할 수 있고 자녀의 학습 방법에 맞추어 효과적으로 더 빨리 한글을 깨우칠 수 있기 때문에 더 좋다는 것입니다.

지난 2008년 북가주 지역 각 한국학교의 학교 실태를 조사해 본 결과 전체 한인 학생 중에서 약 20%만 한국학교에 등록해서 다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나머지 80%는 어디서 무엇을 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한국학교는 한국어를 잘 하는 1세 부모님이 가정에서 가르치는 것으로 대체될 수 있는 곳일까요? 한글을 빨리 깨우치는 것이 한국학교의 목표이고 그 이유 때문에 한국학교에 보내는 것일까요?

한국학교와 개인 교수의 다른 점을 살펴본다면 먼저 한국학교에서는 한국어 및 한국

의 문화와 역사를 공동체 생활을 통하여 배우게 되므로 자신의 바른 정체성을 가지게 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여러가지 특별활동 및 다른 학교의 학생들과 만나서 행하는 행사들을 통하여 더 큰 사회를 엿보고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그뿐 아니라 이 글의 초반부에서 언급한 학생처럼 한국의 역사 문화를 잘 알게됨으로써 무엇이 옳고 그른가를 판단할 수 있는 통찰력도 배울 수 있게 됩니다.

최근에 지난 10여년간 캘리포니아 주의 여러 중학교에서 language arts 시간에 사용해온 읽기 교재인 So Far From The Bamboo Grove (일명 요코이야기)에 역사와 문화를 왜곡한 문제점을 발견하여 앞으로 이 책이 교재로 채택되지 않도록 진정서를 보내고 있습니다. 일본의 식민지 통치를 받은 우리 한민족을 오히려 일본인을 못살게 군 사람들로 표현되는 등 잘못된 내용을 담고 있는 책입니다. 그런 책이 지난 십 수 년간 버젓이 여러 교육구에서 영어 교재로 사용되어 왔어도 누구도 나서서 고치려 하지 않았었습니다. 부모들은 학교에서 가르치는 내용은 모두 옳다고 여기며 살아왔고 혹 그 내용을 아는 재미한인이 있었다고 해도 역사를 모르니 무관심하게 넘어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었습니다. 그러다 어떤 학생이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수면 위로 떠올라 지난 1년간 한인 사회와 교육계에서 크게 파장을 일으켰고 특히 캘리포니아는 올해가 교과서를 채택하는 해이기 때문에 모두 힘을 합쳐 그 교재의 퇴출을 원하는 진정서를 보내게 된 것입니다.

처음에 이의를 제기한 학생이 한국 역사를

알지 못했다면 틀린 내용이라고 이의를 제기하지 못했을 것이고 또한 한인들이 모두 힘을 합하여 한목소리로 퇴출을 요구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이제 오는 11월에는 요코이야기의 퇴출 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했으므로 조용히 기도하며 결정을 기다릴 뿐입니다. 이와 함께 더 큰 명제는 앞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한국어와 한국역사 및 문화를 더 열심히 잘 가르치고 우리 선생님들도 더 많이 배워야겠다는 다짐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의 목적은 기계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만드는 데 있다.

Jean Jacques Rousseau
(1712-1778)



다솜 교실

귀염둥이 고조선반 아이들

송향화 선생님 (고조선반)

나은희

진주

유지

민지

공주

노나영

정희

이진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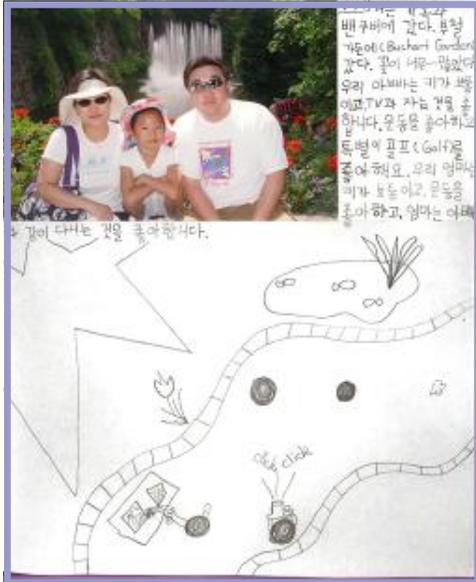
이진원

처음 만나 교실문을 들어섰을 때 아이들 눈이 생각납니다. 선생님이 무엇을 할까 궁금해하면서 어색해하는 아이들, 엄마한테 가겠다고 수업이 다 끝날 때까지 울면서 문만 쳐다 보던 아이들, “선생님? 나 공부 좋아. 우리 빨리 공부해”라고 자신있게 말하고 집중력 2분뿐인 아이들, 수업 도중에 “나 집에 갈래”하고 가방 메고 문 앞에 서서 서성이는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각각 다른 아이들이 고조선반에 모두 모였습니다. 이제 막 한국어를 배우겠다고 학교에 온 아이들에게 첫 단추를 바르게 채워줘야 한다는 마음가짐이 토요일 아침마다 나를 설레게 만듭니다. 다솜 한국학교에서 귀염둥이들이 모두 모인 우리 고조선반 아이들 앞으로 이 아이들이 자라나는 키 만큼이나 아이들 한국어 실력이 무럭무럭 자라길 소망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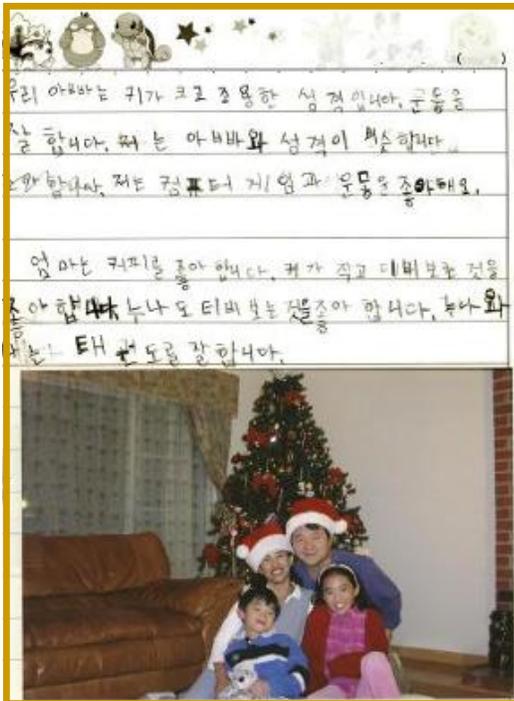


다솜 가족 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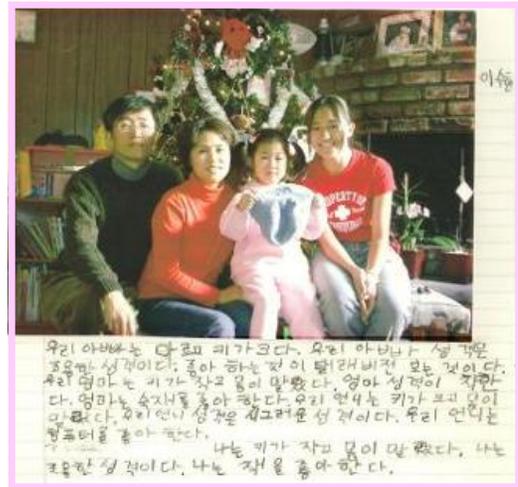
김민희(발해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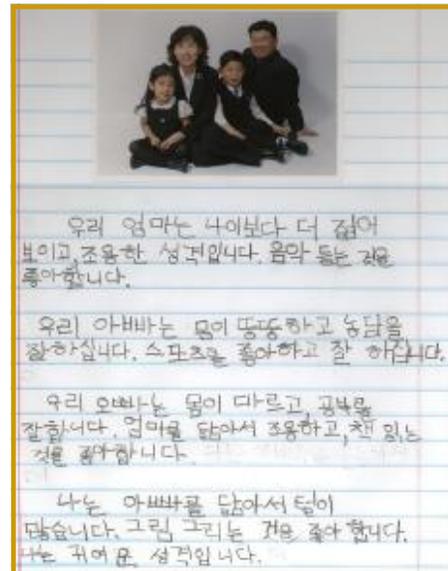
신세경(발해반)



이수현(발해반)



원윤지(발해반)



어떤 마을

도종화 시인

사람들이 착하게 사는지 별들이 많이 떴다
 개울물 맑게 흐르는 곳에 마을을 이루고
 물바가지에 떠담던 점등새소리 별 그림자
 그 물로 쌀을 씻어 밤짓는 냄새 나면
 굴뚝 가까이 내려오던
 뱀티처럼 따스한 별들이 뜬 마을을 지난다
 사람들이 순하게 사는지 별들이 참 많이 떴다



다솜 그림 일기

다솜한국학교 발해반 2008년 9월 일기 이름: 신세경
 제목: 즐거운 다솜 한국학교 운동회

오늘	반	국	학	교	에	서	나	운
동	회	를	가	다	.	거	기	에
	계	임	을	했	.	음	나	음
매	일	계	를	재	미	신	났	다
오	날	하	루	가	무	적	재	
미	있	는	다					

김민하(발해반)

나는 다솜한국교를 찾았어. 아빠와 엄마와 수명장에 갔어. 우리들 같이 하기 참 좋더라. 그리고 누가 소풍을 더 빨리 하나 경주를 했어요. 내가 이겼어요. 재미있었어요.

다솜한국학교 발해반 2008년 9월 일기 이름: 이수진
 제목: 즐거운 다솜 한국학교 운동회

운동	회	에	서	경	쟁	과	백
탕	으로	나	누	이	시	게	임
을	했	.	내	가	제	일	
로	아	하	는	게	임	은	배
로	가	이	다	.	나	는	백
팀	인	데	내	일	이	아	졌
다	.	너	무	기	분	날	이

다솜한국학교 발해반 2008년 9월 일기 이름: 임은지
 제목: 즐거운 다솜 한국학교 운동회

오늘	은	우	리	학	교	운
동	회	에	참	가	와	버
로	나	누	사	씨	를	
했	.	나	는	참	가	
다	들	과	함	께	함	
사	를	사	랑	무	기	
치	기	보	물	찾	기	
가	치	기	를	했	는	

정말 재밌었다. 열심히 응원도 했다. 우리 장난이 첫 지난 기분 나쁘지 않았다. 내년에도 운동회를 했으면 좋겠다.

다솜한국학교 발해반 2008년 9월 27일 이름: 김지영
 제목: 즐거운 다솜 한국학교 운동회

나	는	운	동	회	를	했	는	데
달	리	기	시	는	물	안	하	서
로	금	성	성	행	사	그	런	가
만	나	는	운	동	회	한	것	
	만	은	로	도	만	족	하	다

다솜한국학교 발해반 2008년 9월 일기 이름: 김민하
 제목: 즐거운 다솜 한국학교 운동회

오늘	은	운	동	회	에	즐	거
있	습	니	다	게	는	좋	아
던	권	은	제	기	를	너	무
즐	하	했	어	요	.	너	무
						재	밋
						습	니
						다	!



다솜 한국학교 운동회 (2008년 9월 20일)

2008-2009년 다솜한국학교 교사회의 점심 봉사 학부모 서명

일시	봉사자 (학생 및 학부모 성함)	전화번호
2008년 9월 13일	발해반 (이관희, 김민희, 김민하, 신세경 부모님)	510-687-9490 510-506-2116 925-600-8923
2008년 10월 11일	고려반 (박미소, 조민기, 흥희연 부모님)	408-203-6832 408-499-5666 510-742-0766
2008년 11월 8일	대한민국반 (김규범/김아름, 이형진, 강인모 부모님)	408-262-3465 510-659-4048 510-661-0691
2008년 12월 6일	백제반 (임종현/수영, 서사무엘, 장시온, 최학준 부모님)	650-595-2208 408-497-5899 408-262-8412
2009년 2월 14일	고조선반 (서준호, 노다익, 정인하 부모님)	734-678-4810 510-648-8150 408-956-1648
2009년 3월 14일	고구려반 (남석, 김유나 부모님)	510-573-3033 510-252-9755
2009년 4월 11일		
2009년 5월 16일	권하영/예림 부모님	510-770-1647
2009년 6월 6일	신라반 (티아공주/은주, 이재원, 이아영, 김규민 부모님)	510-453-3122 510-490-1765 510-919-8220

2008-2009학년도 다솜한국학교 학부모 대표 명단

	학부모 성함	전화번호	학생 이름
고조선반	이미경	734-678-4810	서준호
신라반	김은주	510-453-3122	Thia 공주
고구려반	김석영	510-573-3033	김유나
백제반	서명숙	408-866-8826	서사무엘
	임은진	650-508-8520	임종현
발해반	박연화	510-687-9490	이관희
고려반	그레이스박	408-203-6832	박미소
조선반	없음	없음	없음
대한민국반	조안나김	408-262-3465	김아름/규범

다솜 2008년 가을 학기 계획



시 수	월	일	학사 일정	계획 내용	특활
	8	23	교내 교사 연수		
1	9	6	가을 학기 개강	개강식	
2		13	교사 회의	(운영위원회)	
3		20	야외 수업		
4		27			
5	10	4		특활 시작	*
6		11	아침 조회 /교사 회의		
7		18			*
8		25	평통용변대회	상항 한국인 감리교회 (오후 4시)	
9	11	1	SATII Korean 본고사	각 시험장	*
10		8	교사 회의		
11		15			*
		22	아침 조회		
12		29	휴강	추수 감사절 휴강	
13	12	6	교사 회의/사은의 밤	북가주 협의회 교사 사은의 밤 및 총회, 겨울 방학	*
14	1	10	겨울 방학 개학		
15		17	아침 조회/ 종강	종강 (성적표 배부)	

다솜한국학교
 Dasom Korean School
 1494 California Circle
 Milpitas, CA 95035
 Phone: 408-934-3600
 Fax: 408-934-1092
 info@dasomks.org